

남한산성 의승군 수륙재 복원 '눈길'

장경사, 오는 26일 수륙법회

남한산성 장경사가 의승군이 머물렀던 독특한 남한산성의 불교문화 복원을 위해 3년째 문화원형 발굴에 나서 눈길을 끈다. 장경사(주지 경우)는 일제강점시대 이후 중단된 남한산성 의승군 수륙재를 복원, 10월 26일 장경사내 특설도량에서 제3회 의승군 수륙무대차대법회를 봉행한다. 앞서 25일에는 남한산성내 의승군 팔도사찰 견기 순례를 진행했다.

남한산성 의승군에 대한 수록재는 조선 인조 때부터 고종때까지 봉은사에서 봉행해왔다. 구한말 일제에 의해 남한산성내 팔도사찰이 폐사되면서 의승군을 기리는 수록재도 중단됐다.

올해 수록무차대법회는 조계종 종립 어산학교장 인목 스님의 집전으로 전통 수록무차대법회의식으로 진행된다.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은 "남한산성은 산성내 유일하게 종묘를 갖고 있는 등 독특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무형의 문화 복원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남한산성 의승군 수록무차대법회와 팔도사찰 복원은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온 생명은 부처”... 평창선언 공감한다

정념 스님·바이거 교수, 14일 '생명' 주제로 대담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속제가 된 지 오래이다. 단순히 한 국가만 관심을 가지고 지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생 환경운동을 주도한 독일 환경학자와 생명 평화를 삶의 기지로 삼고 있는 수행자가 만났다.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UN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 참가한 독일 분트(BUND)의 후베르트 바이거 의장(67, 카셀대 도시경관계획과 교수)는 불교생명윤리협회 주관으로 10월 14일 월정사를 방문해 주지 정념 스님과 생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2012년 봄 방한하여 국회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던 바이거 교수는 탈핵 등 독일의 환경운동을 주도해왔고, 메르켈정부와 EU의 환경정책을 리드하고 있다. 한국의 불교 생명윤리협회와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사회)와 배동인 강원대 전 교수(통역)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정념 스님과 바이거 교수는 문명 발달로 인한 생명 파괴 현상을 이제 인간이 나서서 치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이번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가 생물자원의 경제적 자원적 가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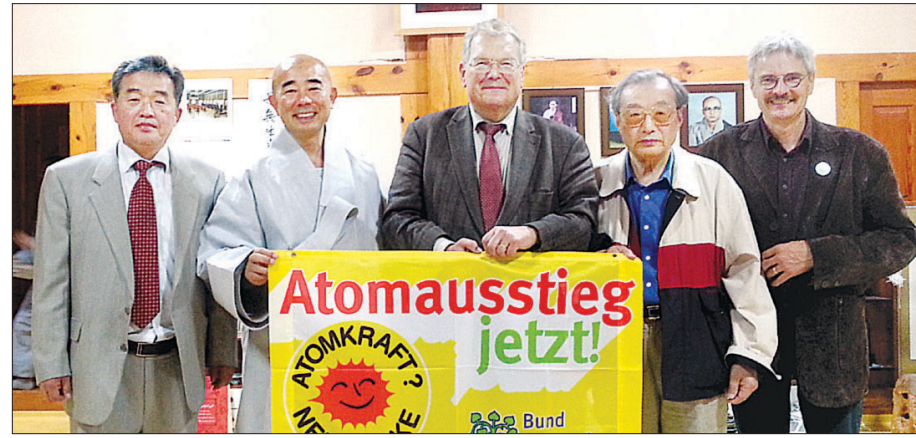
만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바이거 교수는 "독일에서는 500만 명가량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분트에는 5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며 "시민 중심의 환경운동을 벌여온 덕분에 정부가 탈핵을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표명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생태계 보존과 민주주의는 결국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생태계 보존 문제 역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이 곧 인간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정치적 결정권자들이 가져주길 바란다"고 충고하며 "자연 생태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원의 성격을 띤다.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삶을 위한 기반 인간과 인간의 생존과 직결해 있다는 의식이 보편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념 스님은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만물은 하나의 뿌리다. 세계를 하나의 꽃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 가운데 왼쪽)과 독일 분트(BUND) 후베르트 바이거 의장(사진 가운데 오른쪽)은 10월 14일 월정사에서 만나 생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사진은 대담 후 바이거 교수가 건넨 '탈핵하라! 지금!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제공=이원영 수원대 교수

정념 스님
“모든 만물은 한 뿌리
인간 때문에 순환 멈춰”

바이거 교수
“인간, 자연을 과도 사용
일상부터 공존 실천해야”

으로 보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며 생명관"이라며 "상생과 공존의 관점을 지니지 않으면 그 파해가 인간 자신에게 온다.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1일에 발표된 불교의 생명평화 선언인 "2014 생명평화를 위한 평창불교선언"에 대해서는 정념 스님과 바이거 교수 모두 미래 사회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임을 분명히 했다.

정념 스님은 "평창불교선언은 모든 존재는 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모두가

다 꽃이라는 불교의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우리의 입장을 총화해 즙음해 세계인에 천명한 것"이라며 "인류가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할 때 생물다양성 보존만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함 속에서 행복의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거 교수는 "모든 존재의 연결돼 있고 각 존재가 고귀한 꽃이라는 인식이 감동적"이라며 "우리가 선언에 밝힌 세계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줬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공감을 표했다.

정념 스님과 바이거 교수는 이날 대담의 말미에 '공존'의 가치를 강조했다. 바이거 교수는 "모든 생명체가 존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귀중히 여기는 태도가 절실하다"면서 "적절하게 적절한 수준에서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서로 공존하는 일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은 "향후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생명존중사상에 기반해 발전했으면 한다"며 "신자유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육량의 발로가 생태계 교란과 핵 천차이 일어나고 있다. 불교의 생명관으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실천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종무원조합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14일 총무원 국제회의장서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심주완)이 10월 14일 세월호 유가족을 초청,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는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희생자 정예진, 임도은 학생의 어머니 2명이 자리했다.

유가족들은 사건 당일 아이들과의 마지막 통화, 지난 6개월간의 심경을 전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더 보고 싶다. 역정이 무너지고 창자가 터질 것 같다"며 울음을 삼켰다. 이들은 부모로서의 죄책감,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며 유가족을 향한 비판과 사회적 매도로 입은 상처 등에 대해서도 털어냈다.

종무원조합은 현재 진도에 남아있는 희생자 가족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10월 17일 팽목항으로 가는 기차의 버스에 동승할 예정이다. 종무원 10여명은 1박 2일간 진도에서 머물며 실종자 수습을 기원하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종합센터·복지대학원 설립... 청사진 제시

조계종복지재단, 내년 20주년 맞아 발전 아젠다 발표

**불교 복지 역량 집중해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
다양한 분야서 복지 진행
20주년 사업 추진위 구성**

조계종을 대표해 복지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내년 설립 20년을 앞두고 불교복지종합지원센터와 복지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놨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0월 1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복지재단 20주년 기념사업 및 발전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재단 측은 앞으로 불교복지역량을 결집하고 인적, 물리적 인프라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 생산 가능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론타워적인 불교복지종합지원센터와

불교계 인재양성시스템 마련을 위한 복지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술연구출판, 불교복지포럼 등의 연구개발 사업과 함께 정신복지, 생태, 통일, 문화복지, 사회적 기업 등 복지 아젠다를 개발하게 된다. 정부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를 극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복지 정책 생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다문화, 남북관계, 네트워크, 사회융합적 측면에서 접근, 대안적 불교복지 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종환 사무국장(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재단 설립 후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불교상을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영역은 개혁종단 출범 후 가장 성장이 뚜렷한 영역이었다"면서도 "복지정책 수립의 한계, 제도·미래전략 수립의 전문성 결여 등의 부정적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종단과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측의 신성장 동력을 마

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교구본사 중심 사회복지법인 설립 추진은 그대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사회복지사업은 재단이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종단과 산하시설을 연결하여 자비나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20주년 사업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된다. 20년사 발간을 시작으로 CI 개발, 창립기념법회 및 비전선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공동체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학술심포지엄 등이 개최된다. 또한 불교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조계종자원봉사단 축제와 봉사센터 설립 구체화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20주년을 맞아 '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로 거듭나고 '차비와 인간존중'을 기조로 하는 불교복지사업 전개를 통해 불교계 사회적 역할 제시 및 선도적 복지모델을 확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995년 2월 25일 설립 이후 현재 전국에 180여개의 산하 시설을 두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노동자 위해 종교·시민단체 역량 결집

조계종 노동위 등 13일 세미나서 네트워크 구성 합의

노동자 지원 연대 모색을 위해 종교·시민단체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향후 노동자 현장 사업장 문제, 노동정책, 비정규 대책 등에 공동보조와 연대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고민하기로 했다. 우선은 대량 해고와 직장폐쇄에 맞서고 있는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복직 문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용)는 10월 13일 템플스테이정보관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위원회, 기독교 인권위원

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참여연대 등과 함께 노동자 연대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민교협 노동위원장인 권영숙 서울대 교수는 "현 노동 상황 진단과 그간 희망버스 이후 노동연대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고립화됐다"며 "연대의 결과를 어떻게 사회화하고 장기적으로 추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10월 13일 템플스테이정보관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위원회, 기독교 인권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참여연대 등과 함께 노동자 연대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성우상사 거위털 제품의 특징은 가볍고 따뜻하며 땀이 차지않습니다.(거위털이불,패드,베개)
강력한 흡습, 발산, 공기중 형성으로 체온을 33° ±1 유지하고 숙면을 도우며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모든 제품 거위솜털 100%

간편한 세탁(물빨래)/다양한 사이즈(M,L,XL,77,88,99)

www.namsungwoo.co.kr



누비 적삼 55만,50만,45만원
누비 바지 55만,50만원



속조끼 230,000원(녹차)
148,000원(일반)
속바지 380,000원



후드점퍼 410,000원
480,000원



복대 50,000원



조끼 180,000원



목위머 16,000원



다리토시 45,000원



수면버선 80,000원



<소매 착용시> 거위털 점퍼 (지퍼 타입) 320,000원



<소매 탈착시>



저고리 500,000원
450,000원
350,000원



목도리 28,000 / 50,000원

*방수, 흡습, 발산 제품으로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팔도시 20,000원(방수)
공양실 앞치마 32,000원



바람막이 상의 180,000원
바람막이 하의 110,000원



공양 앞치마 20,000원



휴대용이불 가격,색상,사이즈 다양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5가 20번지 B1 22호

대표 02)2679-2848
010-3707-7016